2011학년도 수시 논술(인문계 A)

출제의도와 문제 해설

Ⅰ. 2011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고사는 2010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 유형은 2007학년도 통합 논술에 비하여 통합의 정도 및 난이도를 완화시킨 2008학년도 이후의 논술 출제 경향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의 논술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특별히 감안해서 출제되었다.

첫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보정에 적합한 문제로 구성한다.

둘째, 수험생들의 수준 및 응시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한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학 입학 시험 문제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출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유지했다.

(1)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를 위하여 ①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③ 주어진 자료 속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고교 내신에 대한 보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고교 내신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통합 교과형 논술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목에서 각기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종합적 판단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문제를 출제한다.

(3) 이를 위하여 출제팀 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인문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요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출제의 소재와 방향, 제시문의 유형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문제를 출제토록 한다.

Ⅱ.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고사(인문계 A)는 '혼종성의 의의와 한계'라는 큰 주제 하에 다섯 개의 제시문을 선정하고 논제를 설정하였다. 상이한 문화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인종 간, 문화 간 혼종 현상이 부쩍 늘어나는 오늘날 '혼종성'을 둘러싼 담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문화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 성찰까지 요청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화두로 던질 만한 의미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제시문은 혼종성의 의미와 현상을 용어의 유래와 역사, 전지구화 현상에 맞추어 조명하고 그 한계까지 논의한 이론적인 글이다. 나머지 제시문들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쓰인 다른 종류의 글들이지만 혼종성이라는 주제 하에서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둘째 제시문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혼종이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에 이른 역사적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에세이이며, 셋째 제시문은 인종적, 문화적 혼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소문으로서 정치적 상황이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혼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로 읽을 수 있으며, 넷째 제시문은 미국에 살며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겪은 한국인과 한국에 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화 가운데 혼종의 의의와 한계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다섯 번째 제시문은 혼종의 사회 문화적 역할과 혼종현상의 시간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가상적 사회를 설정한 글이다.

단순한 암기나 기계적인 연습에 의존하지 않고 평상시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독서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가진 수험생들만이 모든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논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논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 논지를 파악하며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점을 지적해 내는 것, 그리고 제시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지침과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어진 분량 속에서 적절하게 논술해내는 것이다. 각각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은 상반되는 주장을 서로 비교하거나, 지문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통해 혼종성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 복합적 논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1)은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의 『혼종문화: 근대성으로부터 들어오고 나오는 전략들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1989)과 호미 바바(Homi Bhabha)의 『문화의 위치 *The Location of Culture*』(1994), 그리고 얀 니더반 피터세(Jan Nederveen Pieterse)의 『전지구화와 문화 *Globalization and Culture*』(2004)에서 인용하여 '혼종성(hybridity)'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의도에 맞추어 재구성한 글이다.

제시문은 혼종 현상의 의미를 설명한 후 혼종성이 함축하는 의의와 한계에 대한 규범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생물학에서 유래된 혼종이라는 용어가 제국주의의 전 지구적 팽창과 더불어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 개별적으로 분리된 구조가 뒤섞여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고, 문화들 사이를 횡단하며 새롭게 창조되는 혼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혼종 현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혼종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문화를 바라보는 틀로 인식하는 담론은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었다. 혼종성 담론은 문화제국주의와 자문화중심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다중적이고 풍요로운 친화관계들을 규정짓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식민 종주국과 피식민국 양자에 존재하는 본질주의를 해체하는 비판기능을 수행한다. 상이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각각의 문화를 유지하며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서 혼종성 담론은 모든 문화를 혼종화의 결과로 보고 현재 더욱 가속화되는 혼종화의 결과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주목한다. 나아가 혼종화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권력관계의 맥락과 그 결과 산출되는 문화주체의 복합적 정체성도 고려해야 한다. 혼종성 담론은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본질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전략이지만 각 문화 간의 권력이 비대칭적일 때 오히려 지배 문화로의 일방적 편입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다른 제시문들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준거 역할을 하는 제시문이다.

제시문 (2)는 고종석의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감염된 언어』, 1999)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제시문에서 저자는 동양의 한자문명권과 서양의 그리스 로마 문명권이 서로 만나고 융화되는 극명한 예로 일본의 에도 시대에 착수된 네덜란드의 문헌에 대한 고찰과 메이지 시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서양 문헌들의 번역 작업을 꼽는다. 제시문은 한자들을 조합한 신조어로 서양의 낯선 어휘들을 옮겨낸 일본인들의 번역 작업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자문명권 전체에 서양의 근대 문명과 학문이 유입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혼종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시문은, '이질적인 것'(A)과 '고유한 것'(B)이 서로

섞여 '만들어진 것'(C)이 결국 A나 B를 단순하게 혼합해 놓은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혼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이성', '철학', '전통', '종교', '현실'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개념어들을 바로 이 같은 혼종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의 예로 볼 수 있다. 제시문에서 이 단어들이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어휘는 물론 문화 전반을 풍요롭게 해주었으며, 여기에 바로 혼종의 가치와 중요성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제시문 (3)은 한말의 유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병인의소(丙寅擬疏)」를 기초로 하되 「서양대집서실(書梁大集書室)」 등 그의 다른 몇 편의 글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병인의소」는 최익현이 고종에게 시무 6조를 건의하기 위해 쓴 상소문 형식의 글로서, 인용한 부분은 그 가운데 서양 세력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조목의 일부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식의 글에 대한 독해 능력을 요구하기 위해 한문 문장의 고투를 살려 번역하였으나, 이 글에 담긴 최익현의 주장은 매우 명료하다. 서양인과 교역하여 그들의 물건을 사용하다보면 결국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보존해 온 전통문화를 해치게 될 것이므로 교역 자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제시문들과의 관계 및 논제를 고려할 때 제시문 (3)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서양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인종적, 문화적 혼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전통문화 역시 실은 혼종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도덕적 관점에서의 문화 우월주의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제시문은, 문화 간의 권력이 비대칭적일 때 혼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지배 문화로의 일방적 편입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민족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역사적 상황에서는 인종적, 문화적 순수성을 강조하여 주체적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이 글을 이해할 수도 있다.

제시문 (4)는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2005)에서 발췌한 것이다. '나마스테'는 '안녕하세요'처럼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두루 건네는 인사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의 시작을 알리는 네팔어 표현이다. 소설은 히말라야 마르파 마을에서 한국으로 온 남자 '카밀'과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온갖 고난과 상처를 겪고서 한국으로 되돌아온 '나'(신우), 이 둘 사이의 사랑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이들이 헤쳐 나가면서 서로의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를 상호간에 받아들이는 과정 전반을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

던 과거의 우리들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중첩시키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냉혹한 시선을 꼬집고 나아가 그 정당성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제시문은 '나'가 외국인 노동자 카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서, 로스앤젤리스 폭동으로 인해 아버지와 막내 오빠를 잃은 '나'가 사건의 경위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생각하는 대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나'가 꼽고 있는 폭동사건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백인들이 소수인종을 무시하는 미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오로지 백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흑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이나 멕시코인 등 소수민족을 착취하거나 억압해왔으며, 따라서 자유, 평등, 기회의 나라라는 선전과는 거리가 먼 미국의 문화 제국주의가 바로 폭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둘째, 소수민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잘못된 행동도 무시하지 못할 원인이다. 미국사회에 온전히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자기들과 엇비슷하게 열약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소수민족들과의 소통에서 근본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내심 흑인을 게으르고 더럽다며 기피해왔으며, '나'가 볼 때, 이것이 바로 폭동 당시에 흑인이나 남미 계통 사람들이 백인보다도 오히려 한국인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증오를 분출하게 만든 원인이다. 제시문은 이러한 '나'의 견해들을 통해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도 정작 혼종을 거부하는 한국인들의 자화상이자 반성의 거울을 그려내고 있다. 다른 제시문들 및 논제와 관련하여 이 제시문은, 인종 간, 문화 간 혼종이 단순히 '섞여 있음'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혼종성 논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제시문 (5)는 혼종이 사회문화적 가치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혼종 현상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알아보고자 간단한 가상적인 사회를 상정한다. 제시문은 기존 문화요소만 존재하던 사회에 신규 문화요소가 유입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화요소들이 무작위로 일대일 결합하여 문화 가치를 창출할 때, 다양한 형태의 결합에 따라 창출되는 가치의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시문은 또한 기존 문화요소 및 신규 문화요소의 각 단위가 창출하는 기댓값에 따라 문화요소의 구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의 아이디어는 메이나드 스미스와 프라이스(J. Maynard Smith and G. R. Price)가 1973년에 『네이쳐(*Nature*)』지에 출간한 논문, 「동물 간 투쟁의 논리(*The logic of animal conflict*)」에서 얻은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논문이 동물의 행동에 관한 것임에 비해 제시문은 문화에 관한 것이다. 또 제시문은 가치창출 과정과 이에 따른 동태적 과정을 상기

논문과 다르게 설정하였다.

Ⅲ. 논제 해설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인문계 A)은 수험생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크게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는데 유의하였다. 또 통합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측면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와 제시문들을 선택하였고, 특정 상황에 대한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제시문도 채택하였다. 통합적 사고에 대한 이런 강조는 고려대학교가 지난 수년 동안 행해온 논술시험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2010년 5월의 예시문제를 통해 제시한 방향과도 일치한다.

논제 I은 제시문 (1)을 350~400자로 요약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의 목적은 글의 내용을 적은 말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잘된 요약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이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여 요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압축적인 글을 작성해야 한다. 요약문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시문에 사용된 어구나 문장을 그대로 옮겨온다면 효과적인 요약이 될 수 없다. 지정된 분량 내에서 글의 내용 전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축적인 개념이나 표현으로 다수의 문장이나 어구들을 대치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요약이 가능하다.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수험생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논제에 대해 주관적인 신념을 표현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것은 감점요인이다.

제시문 (1)은 혼종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성찰한다.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발견되는 혼종 현상은 기존의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선다. 전지구화와 더불어 문화충돌, 문화동질화, 혼종화라는 세 가지 전망이 대두했다. 애초에 인종 혼종을 둘러싼 관심에서 비롯된 혼종은 나중에는 문화 혼종을 둘러싼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문화횡단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혼종은 모든 문화의 지속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대두한 혼종성 담론은 식민 종주국과 피식민국 양자에 존재하는 본질주의를 해체하는 비판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혼종화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권력관계의 맥락과 그 결과 산출되는 문화주체의 복합적 정체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확한 문장으로 작성한 요약문은 이 논제가 요청한 바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논제 II는 제시문 (1)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2)와 (3)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들에게 제시문들의 논지 이해 및 요약 능력과 제시문들의 관계를 비교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1)의 논지를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관계를 비교하고 설명하는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이 논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먼저 제시문 (1)에 나타나는 혼종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후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함의를 설명해야한다.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혼종화에 대한 뚜렷하게 대비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제시문 (2)는 에도 시대 난학과 메이지 시대 번역 열풍을 통해 일본이 상이한 문화의 혼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고, 제시문 (3)은 혼종화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혼종화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대비에서 나아가, 제시문 (1)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부 논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문 (2)를 혼종성 담론에 바탕하여 읽으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어에서 시작하여 유럽의 다른 언어들이나 고전어까지 폭넓게 참조하여 의학, 물리학, 천문학, 군사학을 비롯한 서양 학문 전반을 게걸스럽게 흡수했다'는 대목에서 당시 일본의 서양 문화 수용이 자민족중심주의 문화의 편협함을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문화 혼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서양 문화 수용이 유럽 문화의 전 지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자라는 동아시아 문명의 공통 유산 속에 완전히 녹여버렸고 이를 한국뿐 아니라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까지 수출하였다'는 서술에서 상이한 문화의 혼종을 통해 제 3의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데에 이른 긍정적인 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난학과 번역이 막부의 명령으로 진행되었고 상이한 문화 전통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극도의 열정과 재능을 쏟았다'는 진술을 통해 지배 문화에 일방적으로 병합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혼종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3)을 혼종성 담론에 바탕하여 읽으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서양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 자체가 화를 낳을 것이므로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혼종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토착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애초에 섞임이 없이 순수한 문화이고, 도덕적 이상을 구현한 우월한 문화라고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 둘째, '우리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대목에서 문화와 문화 사이에 힘이 비대칭적일 경우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혼종화는 힘이 약한 측의 문화가 힘이 강한 측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병합, 편입,

동화하여 버리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서세동점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민족 공동체의 정치적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종적, 문화적 순수성을 강조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부여해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혼종화를 거부하고 민족 문화의 순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제국주의의 폭력성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제 III은 제시문 (1)과 제시문 (3)에 나타난 혼종성의 논의에 근거해 제시문 (4)의 '나'가 생각하는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원인들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험생은 제시문 (1)과 제시문 (3)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혼종성의 개념을 찾아내고 이를 제시문 (4)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아 '나'가 생각하는 폭동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비판적 독해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험생은 우선 제시문 (1)에서 혼종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함의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혼종성은 두 문화가 만나서 제 3의 새로운 창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실제 혼종처럼 보이는 결과의 이면에 문화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내재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제시문 (3)은 혼종성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시문 (1)과 함께 읽을 때 혼종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피력하고 있음을 읽어 낼 수 있다. 개화기의 세계조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쇄국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 글을 읽는 것은 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문화집단 사이의 힘이 비대칭적일 경우에는 혼종화로 인해 힘이 약한 문화가 힘이 강한 문화에 의해 일방적으로 흡수 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한 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혼종성이 갖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근거로 해서 제시문 (4)를 분석하면 '나'가 생각하는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두 가지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문화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이다. 혼종 사회의 전형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한국인인 '나'는 미국을 기회의 나라로 생각한다. 그러나 폭동 과정을 통해 소수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배제와 차별이 백인들만이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의식 변화 과정을 묘사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마켓을 지키고자 애썼지만 용감하다고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폭도로 몰리고, 막내아들의 죽음 자체도 억울하지만 죽은 다음에도 희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폭동과정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등을 겪으면서 절망한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깨어나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제시문 (3)에서 일찍이 문화집단 사이의 불평

등한 권력관계를 역설한 최익현의 주장을 떠 올리게 한다.

둘째는 다른 소수인종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과 소통 실패이다. 소수 문화집단인 한국인은 흑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백인처럼 흑인과 남미계 소수인종을 차별하고 배제한다. 빨리 돈을 벌어 그곳을 떠날 것만을 꿈꾸며 이웃과 화합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흑인이 게으르고 더럽다며 기피해 왔고 이점은 폭동 당시 흑인이나 남미계 사람들이 백인보다도 오히려 한국인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증오를 분출하게 만든 원인이 된다. 요컨대 '나'가 생각하는 폭동의 첫째 원인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백인이 보여준 혼종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원인은 개인 행위의 차원에서 혼종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지 못한 한국인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혼종성을 이해할 때 혼종이 일어나는 구체적 맥락과 그 결과 산출되는 문화주체의 복합적 정체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논제 III에 답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나'가 생각하는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원인이라는 단서이다. 즉 이 논제는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객관적 원인을 찾아서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 생각하는 폭동의 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1)과 (3)에 나타난 혼종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나'가 생각하는 두 가지 차원의 폭동 원인을 제시문 (4)에서 찾아서 논의하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제시문들이 다루고 있는 혼종성의 논의에 근거하지 않고 수험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문화상대주의나 문화절대주의, 다문화주의 등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답안을 작성할 때도 감점 요인이 된다.

논제 IV는 수험생들의 추상적,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논제 IV의 (가)는 두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문제는 추상적 모형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이 논제에 대해 단 한 줄의 부등식을 이용하여 논할 수 있다. 논제 IV의 (가)에서 둘째 문제는 이렇게 구해진 부등식에 관한 간단한 충분조건을 주고,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논리적 사고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이 논제에 대해 간단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논할 수 있다. 논제 IV의 (나)에서는 창출 가치의 구체적인 값들을 제시한 다음, 수험생들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존 문화요소 및 신규 문화요소의 기댓값을 비교하고, 기존 문화요소 및 신규 문화요소의 단위 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논제의 핵심이다. 논제 IV의 (나)는 (가)보다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반면, 수험생들이 적어도 3단계의 추론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